

##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윤일선(尹日善,1896년 10월 5일 ~ 1987 6월 22일)은 한국인 최초의 병리학 자이며, 한국인 최초의 정식교육을 받은 해부학자 중 한사람이다. 일본 도쿄 출신이며 본관은 해평 윤씨이고 아호는 동호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병리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계를 태동시킨 학자이다.원래는 천주교였으나 후에 개신교로 개종하였다.

## 생애[편집 | 원본 편집]

윤일선은 1896년 10월 5일 개화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부모님의 장남으로 태어나 그곳에서 소학교를 다니다 귀국하여 1915년 경성중학교를 졸업하였다.이후 1919년에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오키야마의 제 6고등학교의예과,1923년 교토제국대학의 학부를 졸업하였고 졸업한뒤 동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다.이후 독일 비르호의 초기 제자로 일본 병리학을 일으킨 후지나미 교수를 사사했으며 그의지도로 한국인으로는 여섯 번째로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1927년 그는 동대학교 병리학 교실의 조수, 1928년 조교수가 되어 강의와 연구를 하였다이때부터 활발한 논문활동과 더불어 한국의 질병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1929년 교토제국에서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1930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가 되었으며 1945년까지 17년간 후학들을 지도하고, 암, 내분비, 알레르기에 관한 연구에 전념하였다.일제강점기 말 '미영타도 대강대회'에 연사로 참여한 적이 있으며 해방후인 1946년 대한병리학회 창립 및 초대회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수,1948년 대한의학 협회 회장, 1952년 대한민국의학원 출범에 참여하여 회원이 되고 1954년 대한민국의학원 회장으로 선출, 1956년 서울대학교 제 6대 총장으로 선출되어 5년 3개월간 최장수 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신 뒤 1961년 정년으로 퇴임하셨다.그는 해방후에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 **Cancer Research**에 '한국인 종양의 통계적 조사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해방된 우리나라의 학문을 처음으로 세계 문헌에 등록하였다.1963년 국내에 원자력의학이 처음으로 도입되자 그는 원자력병원의 초대 원장에 임명되었고 원자력 치료에 대한 연구 및 지원에 힘써 원자력 치료의 기틀을 마련하였다.원자력병원장에 선출된 뒤 원자력 내 방사지능학연구소를 창설하였다. 1964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총회 한국 대표로 다녀왔으며 1965년 오스트리아에서 다시 개최된 국제 원자력기구(IAEA)에서 또한번 총회 한국 대표로 선발되어 다녀왔다.1966년 원자력병원장에 재선되었다. 1972년 한국과학진흥재단 고문, 연암문화재단이사, 한국아동재단 이사에 위촉되었다.그 후 유네스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위원장, 원자력병원장, 과학기술 후원회 이사장 등을 거쳐 1980년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이 되었다.학술원상과 문화훈장, 서울시 문화상 등을 받았다. 1986년 2월 인간상륙수 명예 칭호를 수여받았다.한국의 학계의 태두라는 평가를 받았다. 만년에는 백내장 수술과 난청을 앓았다. 1987년 6월 22일 오전 10시경 자택에서 노환으로 사망하셨다.

## 저서 및 논문[편집 | 원본 편집]

## &lt;논문&gt;

-인체내분비에 관한 연구

## -면역체

-한국인의 암에 대한 통계학적 연구

-안드라퀴논을 투여한 토끼의 위암

-필로칼핀 및 고탄이식에 관한 연구

-호르몬과 아나필락사의 관계

-조직의 과민성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 &lt;저서&gt;

-윤일선박사화갑기념논문집

등 여러 가지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셨다.

## 평가[편집 | 원본 편집]

일제강점기에 병리학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한국 병리학의 탄생과 발전을 주도하였고 조선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또한 최초의 우리말 학술지의 창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방 후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대학교 출범 과정에서 경성대학의 학부장으로 제역

할을 다했고, 서울대학교 발족 후에는 대학 원장과 총장으로서 초창기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인격이 결여된 자는 학문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평생 동안 학자의 길을 걸어온 그는 근대과학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대학자이며 학식과 인격을 갖춘 대학행정이였다. 하지만 그가 일제강점기때 미영타도 대강연회의 연사로 참가한 점을 들어 비판하는 자들도 존재한다.